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Knutsen OAS linked to newbuild order for PGNiG LNG carrier duo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선 2+2척에 대한 발주처가 노르웨이의 Knutsen OAS Shipping이라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Petredec inks deal at Jiangnan for up to six LPG-fuelled VLGCs

중국 Jiangnan Shipyard가 Petredec으로부터 93,000CBM급 LPG추진 VLGC 3+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확정분 3척의 납기는 2023년 1, 3, 5월이며 척 당 선가는 7,000만달러를 상회한다고 보도됨. (TradeWinds)

Gazprom kicks off extension of huge gas export pipeline to China

러시아의 건설업체 Stroytransneftegaz가 동시베리아지역에 가스 파이프관 설치를 시작했다고 보도됨. 해당 파이프관은 Gazprom의 Chayanda와 Kovykta 가스전을 연결할 예정이며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LNG 수출 물량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Upstream)

한화시스템, 동양생명 ITO 수주..."110억 원 규모"

한화시스템은 자사 ICT 부문이 110억 원대 규모의 동양생명보험 IT 서비스 아웃소싱 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힘. 한화시스템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6개월 동안 동양생명 보험 업무 전반의 IT 시스템 및 웹서비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한국경제)

IG넥스원, 방위사업청과 항공관제레이더 356억 원 규모 양산계약

LIG넥스원은 3일 공시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356억7,900만 원 규모의 '항공관제레이더(PAR) 후속 양산' 계약을 맺었다고 밝힘. 계약 금액은 LIG넥스원 2019년 매출의 2.5%에 이르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3년 11월30일까지라고 보도됨.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항공우주 "공군, T-50B 추락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

한국항공우주는 공군이 T-50B 추락사고에 대해 제기했던 37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항소했다고 3일 공시함. 공군은 지난 2012년 11월 15일 발생한 T-50B 추락사고에 대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를 대상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비용 등 377억원을 배상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16일 1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바 있음. (이데일리)